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확충해야

## 간협 성명서 발표 ... 지역보건법 개정안 적극 지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확충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의원(2017. 7. 5.), 남인순 의원(2017. 12. 4.), 윤종필 의원(2017. 12. 19.)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17번)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제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상인사회를 통해 방문건강사업의 시행만을 위해 전담공무원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주민건강관리의 대안이 있음에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

관리 전담공무원(간호사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모두 계약직 신분인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 개정 취지를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진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

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면서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선진국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요양)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은 1차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돌봄제공자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인력들이 연계해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김광수·남인순·윤종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 계약직으로 10년 넘게 고물받았던 방문건강관리인력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병원간호사회 신규간호사 간호문화 세미나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간호문화 세미나'를 2월 2일 개최했다. 신규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신규간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음열기"와 "함께해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바람나는 간호사가 되려면" 주제강연을 박영근 아담재 대표가 진행했다.

박영근 대표는 "선배간호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며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숙련가(Manual Worker)를 넘어 전문가(Knowledge Work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련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주도



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면서 "전문가는 일하는 방법이 끊임없이 개선·개발·혁신해서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며, 이때 자부심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갖춰진다"고 말했다.

또한 "돈이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외적 보상)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내적 보상)을 목표로 하면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박경숙 학장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에 박경숙 교수가 임명됐다. 2월 1일자.

신임 박경숙 학장은 1978년 중앙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병원 간호과장을 지냈으며, 1995년부터 중앙대 교수로 몸담아왔다.

현재 대한간호협회 이사, 노인전문간호사교육과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경숙 학장은 "중앙대학교 100주년을 맞이해 세계화된 간호인재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신대 간호대학 이영은 학장

고신대는 제8대 간호대학 학장에 이영은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2월 11일자.

신임 이영은 학장은 부산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화여대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고신대 교수로 몸담아왔으며, 교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고신대 호스피스교육센터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국아동간호학회 회장과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부산시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우수논문상, 한국여성간호간호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영은 학장은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간호대학이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대비하기 위해 세계를 품는 기독간호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은 학장은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간호대학이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대비하기 위해 세계를 품는 기독간호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간호사회 장명숙 사무처장

강원도간호사회는 사무처장에 장명숙 사무부장을 임명했다. 1월 1일자.

신임 장명숙 사무처장은 1987년 강릉영동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 간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



2007년 1월부터 사무부장으로 일해왔다.

# 기독교간호사협회 총회 ... 정순화 회장 재선임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가 총회를 2월 1일 열고 정순화 현 회장(사진)을 재선임했다.

협회는 올해 성경통독 모임, 큐티나눔방, 중보기도회 등 영적간호학과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 개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다음 세대 기독간호지도자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 졸업생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창립기념일에 한국간호선교역사자료집 및 대한기독교



영적간호 우수사례 발표자에게 격려사를 수여한다.

총회에 이어 간호대학생 겨울수련회가 'Hidden Gift(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주제로 열렸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감염관리간호사회 총회 ... 김성란 회장 선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는 제23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2월 2일 열고 새 회장으로 김성란 교대구로병원 감염관리실 부팀장(사진)을 선출했다.

간호사회는 올해 감염관리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과 멸균' 개정판을 발간기로 했다.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회원들의 해외학회 및 연수과정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



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활발히 교류하기로 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 해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변화를 위한 준비(Ready for Change)' 주제로 열렸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와 역할' 등의 주제강연, 감염관리 사례 및 연구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jo@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 게시판

## 피부재활간호사과정 교육생 모집

오정옥피부재활센터 임상연구소&아카데미(소장 오정옥 한국피부재활간호사회장)에서 '2018년 피부재활간호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상 및 당뇨, 욕창, 임파부종 등 피부병변의 이해 및 상처간호, 피부재활간호요법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피부재활간호사 양성과정이다. 오정옥 소장님 특강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교육기간 3월 14일~7월 25일,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총 160시간 과정(실기 64시간 포함), 수강료 360만원. 문의 02)552-7701. 홈페이지(www.ojsrc.com) 참조.

강북삼성병원 강남힐관센터 교육자 심포지엄

강북삼성병원 강남힐관센터는 제9회 강남힐관센터 교육자 심포지엄을 3월 10

일 오전 8시30분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의사, 간호사 등 대상. 연속학습검사(CGMS)를 활용한 치료, 당뇨병과 혈관 합병증의 최신 지견 등 강연 진행. 3월 2일까지 사전등록비 3만원/현장등록비 4만원. 접수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dmbest.co.kr) 참조. 문의 02)2001-1579.

## 제16회 호흡재활 워크숍

연세대학교 회귀낙치성 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와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는 제16회 호흡재활 워크숍을 3월 17일 오전 8시30분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및 1동 7층 재활치료실에서 개최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주관한다. '환기조절, 호흡근 기능적 해부학' '수면 무호흡의 진단 및 치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노인 환자의 호흡재활' 등 주제강연, 호흡재활기법과 도구별 사용법 관찰 및 실습이 진행된다. 문의 02) 2019-3496.

# 남성 육아휴직자 처음으로 1만명 돌파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3.4%

남성 육아휴직자가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하고,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는 1만2043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7616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58.1% 증가했다.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17

년 13.4%로 4.8%p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10.1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로 가장 많았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12.4%),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9.7%), 10인 미만 기업(9.2%),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6.3%) 순으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4408명으로 2016년(2703명) 대비 63.1%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 '아빠넷'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을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간호사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으로의 혁신!

## 지부 중심의 협회 조직 혁신, 산하단체 중심의 간호정책 혁신!

지난 32대와 33대 대한간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학제의 4년 일원화를 실현하였고,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의료법을 개정하여, 간호보조인력의 도전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크게 제고하는 패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료법 하위법령에는 지금도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총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명칭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몰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거나, 대한간호협회와 지부, 간호사 회원, 보건의료단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는데 소홀해지면, 간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선 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제37대 회장단 후보는 수많은 간호정책 과제와 협회의 혁신을 대의원님, 그리고 회원님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37대 회장단은 혼신을 다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후보 출마의 변 중에서 -

기호 1번  
신경림·곽윤희·김영경

